

진도군, 인구늘리기 민·관 함께 추진

인구늘리기TF 구성·사회단체 동참 등 범군민 운동 확산

“청년 인구 유입·정주기반 마련·보육환경 개선 등 펼칠 것”



진도군이 저출산·고령화 등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민·관이 인구 늘리기에 동참하고 있다.

군은 ▲출산장려금·결혼장려금 지원 확대 ▲청년·소상공인·귀농·귀촌인 지원 사업 추진 등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다.

최근 신규 아이디어 발굴과 효과적인 시책 추진으로 군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구 늘리기 TF팀을 발족했다.

TF팀은 우홍섭 부군수를 단장으로 인구정책 관련 부서장 등 10명이 참여했으며, 지난 1월말 정기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1회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.

저출산·고령화, 청년·일자리, 귀농·귀촌 등 농어촌 활력 분야의 중점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. 또 관내 사회단체에서도 인구 늘리기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.

진도군 재향군인회는 인구 늘리기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,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앞장 설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.

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“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 인구 유입, 정주기반 마련, 보육환경 개선, 생활인구 확대 등의 시책을 활발하게 펼쳐 나갈 계획이다.”라고 말했다. 진도=조상용기자

강진군, 동장군에도 어르신 안전 ‘이상 무’

찾아가는 생활민원 해결사 OK생활민원센터, 한파 기간 중 18건 처리



찾아가는 생활민원 해결사 강진군 OK생활민원센터가 오는 20일까지 동절기 집중 점검 및 수리기간으로 정하고 강진군 전 지역을 다니며 소규모 집수리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.

지난달 24일, 전국적인 한파와 난방비 상승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, OK생활민원센터 사업단이 동파된 수도관 교체부터 단열재 보수까지 동장군이 지나간 흔적을 신속하게 처리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.

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1월 24일부터 7일간, 사업단은 집수리 2건, 수도관 동파 및 배관설비 4건, 전등 교체 및 전기시설 10건, 기타 수리 2건 총 18건을 접수해 처리했다.

특히 노후화된 전기시설로 화재의 위험이 있던 주택에 전기선과 배전반을 교체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등 OK생활민원 사업단의 활동은 현장 밀착형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우수 사례로 평가된다.

한파로 수도관이 동파되어 서비스를 지원받은 성전면 A씨는 “수도관이 깨지고 물이 새 걱정이 컸는데, 수도관뿐 아니라 수도꼭지까지 교체해줘 겨울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게 됐다”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.

김 경 주민복지과장은 “취약계층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OK생활

민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란다”며 “겨울 한파로 인한 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OK 생활민원센터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사소한 불편을 직접 방문해 신속히 처리해주는 민선 8기 신규사업이다. 소규모 집수리, 전기시설, 배관, 기타 불편 사항 등 4개 분야 서비스를 제공한다.
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, 노인세대, 장애인 세대, 사회취약계층 가구는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. 단, 주거시설물 중 전문기술이 필요하거나 과도한 재료가 부과되는 수리는 제외된다.

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주소지 읍·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.

강진=김영일기자

완도군, 올해부터 초·중고 신입생에 축하금 지원

초등 입학 10만 원·중고교 입학 20만 원 지급

완도군은 올해부터 민선 8기 공약 사항인 ‘관내 초·중·고등학교 입학 축하금’을 지원한다. 군에 따르면 입학 축하금 지원 대상은 완도 지역 초·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고, 입학 일 기준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있는 학생이어야 한다.

통해 하면 된다. 입학 축하금은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,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는 10만 원, 중·고등학교 1학년생에게는 20만 원을 지급한다.

지급 신청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교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신청 방법을 알리고, 친권자, 후견인 등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

학생을 보호,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.

축하금은 자격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.

군 관계자는 “타 시군에서는 초등학교에 한해 지급하던 입학 축하금을 우리군은 관내 중·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”면서 “교육복지 보편화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완도사랑상품권 이용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 완도=기동취재본부

해남군 “맛있는 해남쌀 먹고 운동하세요” 전지훈련팀 이용 식당에 쌀 지원



해남군이 해남을 찾는 동계전지훈련팀 등 스포츠선수단이 이용하는 관내 음식점에 고품질 해남쌀을 지원한다. 지원된 해남쌀은 선수들이 식사를 하며 추

위로 요구하는 공기밥을 무료로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한다. 20kg 기준 500포의 쌀을 지원할 계획으로, 전지훈련과 각종대회 선수단이 이용한 음식점이면 쌀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.

다만 생활체육대회나 동호회 등 스포츠 행사 참여에 대한 지원은 제외되며, 각종 민원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도 지원받을 수 없다.

지난 3년간 46개소에 1,471포를 지원한 바 있다. 해남군은 2022~2023 동계기간 동안 전지훈련선수단 130여개팀, 연인원 4만명 유치를 계획으로, 학부모 및 관계자를 포함하면 연

인원 7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장기 훈련의 경우 30일에서 90일까지 체류하게 되는 선수단은 해남군 관내에 머무르며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관광비수기인 겨울철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.

해남군은 음식점지부 등과 협력하여 위생, 친절서비스로 선수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교육과 시설개선 사업 등도 펼쳐오고 있다.

군 관계자는 “밥맛 좋은 해남쌀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해남인심도 전하고 선수들이 건강히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”고 전했다. 해남=기동취재본부



장흥군 장동면,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개최

장흥군 장동면(면장 문수연)은 3일 장동면 다목적회관에서 지역 어르신 85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개최하고 사업의 새 출발을 알렸다.

이 날 행사에는 김성 장흥군수가 참석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가까운

거리에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.

또한 발대식에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에게 사업의 취지, 내용 설명과 더불어 참여자 안전사고예방 교육 책자를 배부 해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함께 진행했다. 장흥=김도영기자

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!

세계의 중심으로! 풍요로운 일자리로!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!
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!

클라우드 데이터 센터

한국섬진흥원
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

전라남도